

대법원 2020도4246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강간 미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정화)은, 2020. 5. 28.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, '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'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'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'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도4246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2019. 5. 28. 06:24경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정○○(여, 20세)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
-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: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△△△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였음
-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~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'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'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

아내려고 눌러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 원룸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돌아갔음

나. 소송경과

- 제1심: 주거침입 유죄(징역 1년), 주거침입강간 이유무죄 ➡ 피고인 항소(양형부당), 검사 항소(사실오인, 법리오해)
- 원심: 주거침입 유죄(징역 1년), 주거침입강간 및 (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) 주거침입강제추행 각 이유무죄 ➡ 검사 상고(사실오인, 법리오해)
 - 피고인에게 법률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 -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려움
 -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만을 기초로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추단하기 어려움
 -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뒤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움
 -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
 -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·협박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(소극)
-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(소극)

나. 판결 결과

- 상고기각 (주거침입 유죄,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주거침입강간)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죄에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